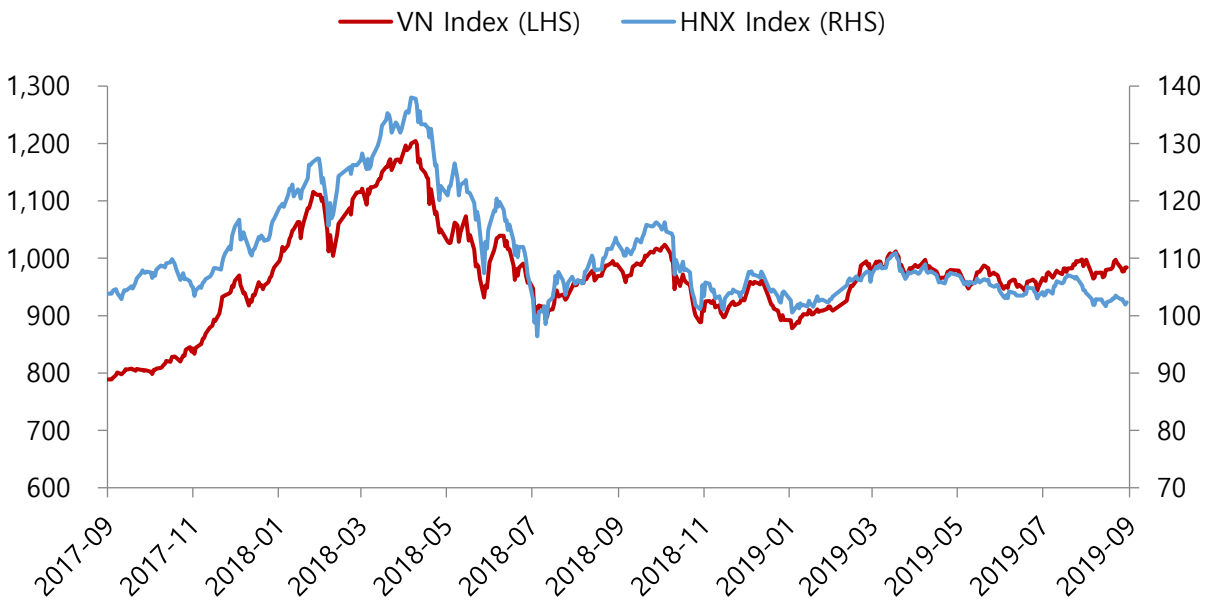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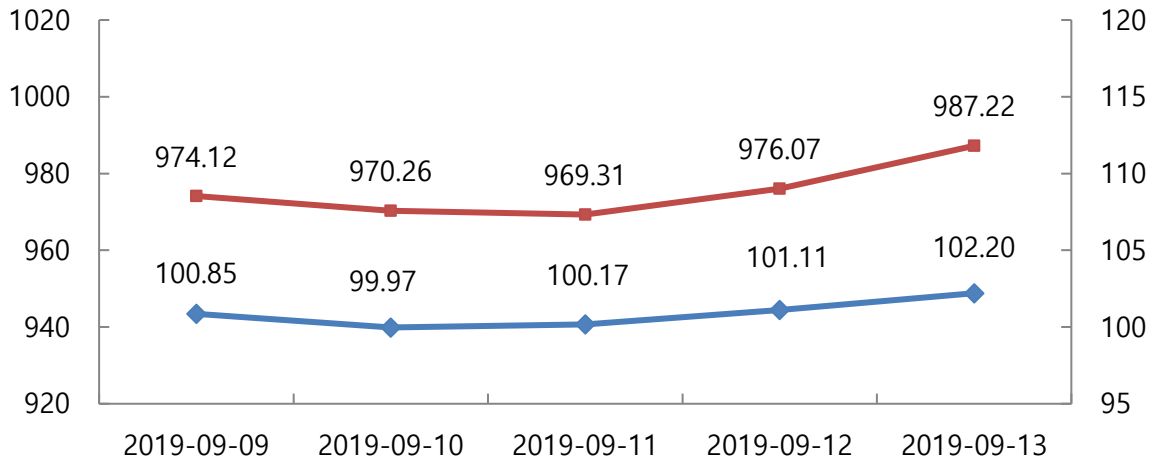
1. 주식시장 뉴스

■ 연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중 주식시장 개관

이번주 초 VN 지수는 대형주의 부진과 매도 압박으로 하락을 거듭했다. 그러나 미 중 무역관계의 긍정적 조짐과 아이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사전 주문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면서 다시금 상승세로 접어들었고. 13일 전일 대비 11.15포인트(1.14%) 급등한 987.22로 장을 마감했다. HNX 지수 역시 VN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10일 100선이 붕괴되는 고비를 넘긴 뒤 꾸준히 상승하여 13일 전일 대비 1.09포인트(1.08%) 상승한 102.20으로 장을 마감했다.

■ 개별 기업 뉴스

○ 비엣텔 글로벌, 이익 급증

통신업계 거인 비엣텔 글로벌 투자 JSC가 지난 해 손해를 보고한 후 1조 1700억 동(5050만 달러)의 세전 이익을 보고했다. 국영 비엣텔 그룹의 해외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비엣텔 글로벌의 감사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157억 7000만 동(681,000달러)의 손해를 보았다. 이사회는 첫 6개월동안의 매출은 7조 9000억 동(3억 4100만 달러)으로 전년 대비 1.5% 하락했으나 매출원가가 격감하면서 매출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통신 핵심 사업에 집중하여 사용자 당 평균 매출(ARPU)을 향상시키고 수익률이 낮은 장비 판매를 줄였다. 이러한 선택으로 영업 수익률(재무수익 제외)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4%에서 35.3%로 높아졌다.

○ 빈그룹, 싱가포르 펀드로부터 5억 달러 투자 받는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이끄는 컨소시엄은 민영 대기업 빈그룹에 5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약에 서명했다. 이 계약으로 GIC는 베트남에서 주로 소비자 소매업에 종사하는 빈그룹의 자회사 VCM 서비스 및 무역 개발 JSC의 소수 지분을 갖게 된다. 지분총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계약 후에도 빈그룹이 대주주인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GIC는 밝혔다. GIC는 1981년 싱가포르의 외환보유액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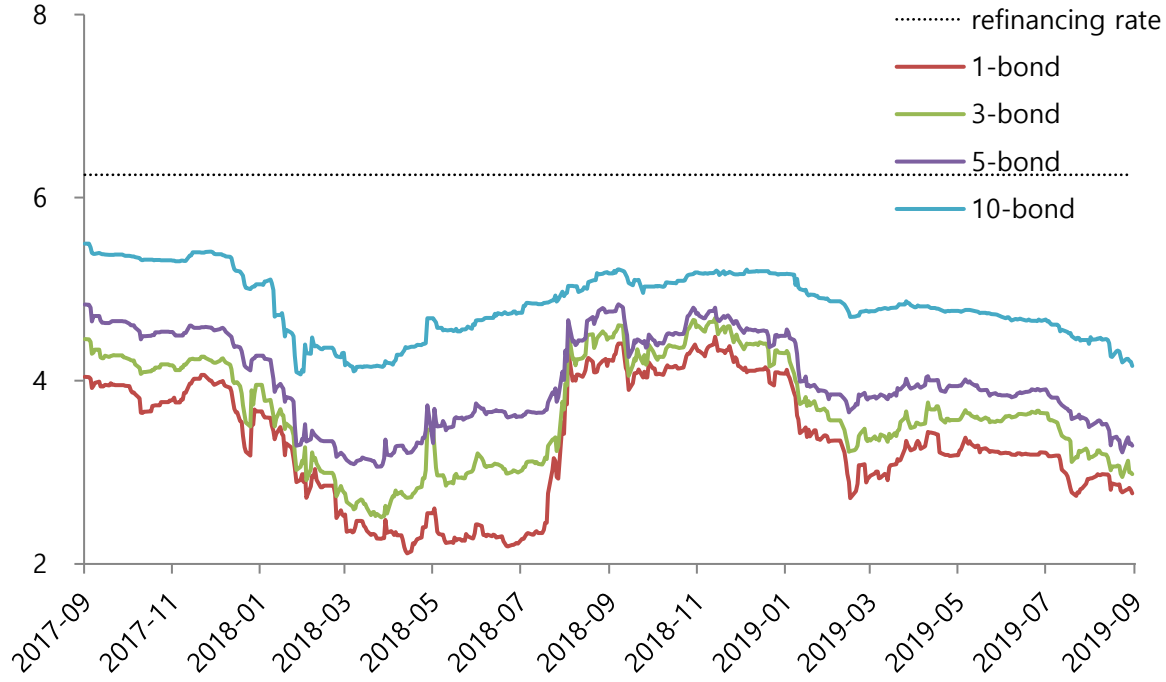
2. 주요 경제 동향

■ 첫 8 개월 동안 회사채 발행 증가

SSI 증권사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첫 8개월 동안 총 117조 동(50억 3000만 달러) 가량의 회사채가 발행됐다. 이 수치는 첫 8개월 동안의 성공적 발행률이 90.8%라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채 시장 가치는 베트남 전체 GDP의 10.2%와 동일하다고 SSI는 추산했다. SSI가 증권거래소와 회사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첫 8개월동안 제공된 회사채의 총 가치는 129조 동으로 추산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2018년 기업채권의 발행금액은 총 224조원으로 전년 대비 94.5% 증가했다. 지난 해 시장 가치는 474조 5000억 동으로 전체 GDP의 8.6%를 차지하고 2017년 6.19%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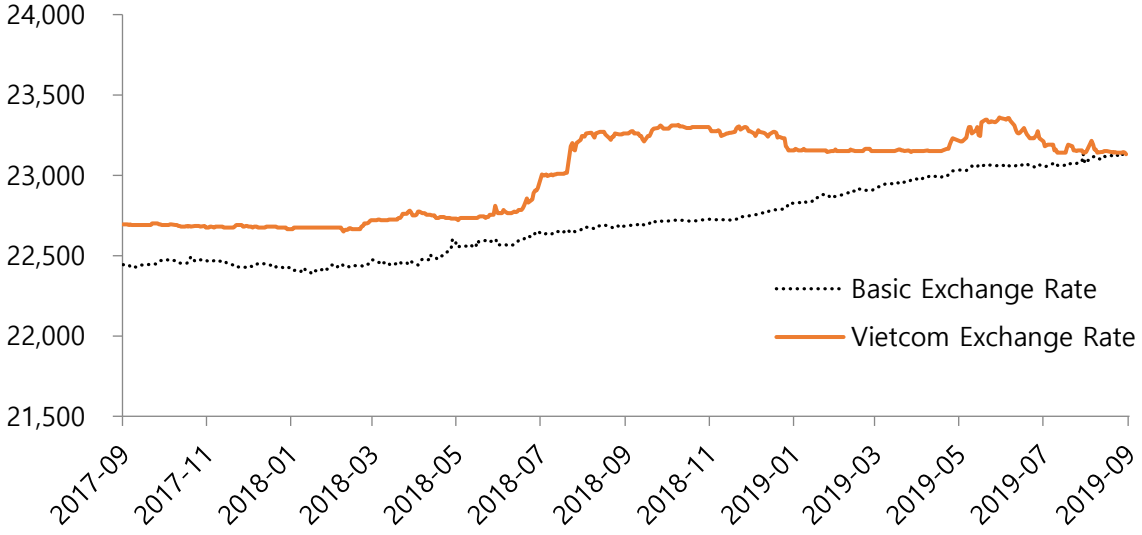
3. 금융 시장 동향

■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 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2019-09-13	Buying	Transfer	Selling
VCB Exchange Rate	23,125	23,155	23,275



■ 핀테크 법률 프레임워크 개선 필요

금융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은행과 핀테크 기업간의 종합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다. 베트남 중앙 은행(SBV) 결제 부서 결제방법 감독부 차장은 베트남 인구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고 기업이 3G와 4G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등 통신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핀테크 규정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핀테크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완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 부동산 채권, 투자자 유치 어려워

올해 첫 8개월동안 발행된 부동산 채권의 7%만이 매매되어 모든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이공 증권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44개의 부동산 회사가 1월부터 8월까지 47조 8000억 동(20억60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다. 부동산 채권의 평균 금리는 연 10%로 6.7%인 은행 채권보다 높지만 은행 채권은 99.6%의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높은 위험 때문에 투자자들이 부동산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대형 채권 매입자인 은행의 대부분은 안전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부문에서의 매입을 피하고 증권 중개사를 통해 다른 은행의 채권을 매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했다.

5. 한국 기업 동향

■ 베트남우리은행, 5 개 지점 개설허가…내년 본격 개인금융 영업

KB 우리은행의 베트남 법인인 '베트남우리은행'은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다낭지점을 비롯한 5개 지점 추가 개설 허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8일 베트남 중부 유명 관광지 다낭시에 신규 지점을 개설하고, 11월 15일 베트남 남부 공업 도시 비엔호아시에 지점을 열 계획이다. 또 12월 5일 베트남 남부 경제 중심지 호찌민시 공항 주변에 지점을 열고, 12월 13일 국내외 기업이 대거 진출한 베트남 북부 빈푹성에 지점을 각각 개설한다. 이어 내년 4월 6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의 번화가인 호안끼엠에 지점을 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베트남우리은행의 지점은 현재 9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베트남우리은행은 또 지난 7월 도입한 인공지능(AI) 신용평가 모형을 활용한 개인 신용대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개인금융 영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관광객이 대거 찾는 다낭시와 하노이시 호안끼엠 등지에 지점을 개설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구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More information: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0065000084?input=1195m)

■ 무역보험공사 베트남 하노이지사 개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베트남에 하노이지사를 개소했다. 8일 무역보험공사는 "현지 국내외 금융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노이지사는 호치민지사(2004년 개소)에 이은 공사의 두번째 베트남 지사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베트남은 신남방 진출 전략의 핵심국가다. 하노이지사는 앞으로 우리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에 전진 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More information: http://www.fnnews.com/news/201909081420347593)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jiho@jplawvn.com + 84-96-280-601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